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동역자 및 후원자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요즘 르완다는 비록 뜨거운 햇살아래이긴 하지만, 성탄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새해를 맞이하는 일에 분주하고 들뜬 분위기입니다. 타운의 대형(?) 마트에서는 트리 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서있고 많은 회사와 관공서가 1주일 넘게 문을 닫고 군부대 근처에서는 수 많은 군인들이 고향으로 휴가를 가기 위해 더블 백을 몇 개씩 돌려 메고 행복한 표정으로 버스를 기다립니다. 많은 건물에서 캐롤이 흘러나오고 큰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워지는 등 여기가 아프리카 인가 싶을 정도의 변화들이 매년 나타나는 걸 보면 놀랍기도 하고 르완다의 희망적인 미래가 보여지는 듯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서 또 다른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덧 2018년의 마지막 기도 편지입니다.

먼저 두달동안 진행되어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들을 말씀드리면,, 모든 의료장비들을 컨테이너에서 꺼내 셋팅을 했는데 사소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1년 넘게 뜨거운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었기에 여러 차례 기도 편지에서 언급하며 기도부탁을 드렸었는데,, 모든 장비를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문제가 있었던 X-ray는 감사하게도 좋은 현지 테크니션을 알게 되어 수리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본 순간 정말 입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외에 컨테이너 있었던 대기실 소파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무사히 병원에 옮겨지고 하여 모든 셋팅을 마쳤습니다. 세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신 동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필요한 장비들과 의료 소모품(르완다에서 구할 수 없는)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들이 원만하고 재정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을 마쳤습니다. 간호사 4명, 약사, 임상병리사, 접수, 캐서, 행정 매니저(사무장)까지 9명 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면접 보면서 백선교사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믿을 사람 없으니 너무 좋은 사람 고르려 애쓰지 말자 였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진지한 대화 내용이었습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면접에서 풍기는 말투와 인상에 속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특히 아프리카에서 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릴 것은 함께 하게 된 직원들을 온전히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을 테고 실수와 부족한 모습들을 보일 것이 뻔한 데 , 가르칠 건 가르쳐야겠지만 이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 주고 한 가족으로서 이해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의 대상은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 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함께 하는 직원들부터가 저희의 선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주 전에 병원 개원 허가를 위해 해당 관공서에 서류 접수를 하였고 2주만인 지난 주에 1차 점검을 나와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준비를 마쳤고 다음 주 월요일인 31일에 2차 점검을 나오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그 관공서에서 점검 결과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주면 그 서류를 다시 보건 복지부에 접수하고,, 그러면 얼마 후에 보건 복지부에서 확인 점검을 나와서 모든 게 적합하면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를 내 줍니다. 이 과정이 말로는 쉬운데 경우에 따

라서는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여 정확히 언제 진료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고 마음을 비우며 상황에 따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조금하지도 불안해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동역자 분들과 함께 이 과정을 걸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공서, 보건 복지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속에서, 그 관계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일들이 부드럽게 진행되어 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며 나누리 병원을 통해 르완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서의 해가 거듭될수록 기도 편지가 힘들어 지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선교사로서 제대로 열매 맺으며 살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면 늘 부끄럽기 때문이겠지요. 이번에도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 편지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밤에 잠시 읽은 책 때문인지 새벽 3시에 눈이 뜨이며 정신이 맑아져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나누리(Nanuri) 공동체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상훈 선교사의 20여년간의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살아온 삶의 여정과 진리에 대한, 삶의 목적에 대한,, 그리고 선교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깨달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진리에 대한, 삶의 목적과 선교의 방향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름답고 행복하도록 만드신 이 세상이 전혀 행복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한 현실속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라는 책의 제목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나 아닌 다른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함이 사라져 버린 이 시대에, 사람을 사람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실만큼 사랑하신 그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강박하고 완악한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천국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금 나누리 병원이 르완다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직원들과 환자들을 대해야 하는지, 선교사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지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저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2019년 새해가 되었지길 사모하며,,,

2018년 한 해의 끝자락에
르완다에서 박준범 백지연 드림.



(X-ray 실)



(내과 진료실 및 초음파)



(소아과 진료실 및 이비인후과 유닛)



(소아과 대기실)



(내시경 장비)